

SUMMARY

[세계화에 대한 불신과 선진국발 정치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1. 향후 예상되는 불확실성

1) 체제변환기(Regime Change)적 불확실성

- 트럼프노믹스 : 강달러정책, 수출 확대 정책, 재정지출 확대, 재정건정성 확보

2) 세계 각국의 거대한 무역전쟁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 미국 : 중국에 45% 관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중국 : 미국기업에 독과점이나 세무조사 강화, 미국산 제품 규모 축소, 반덤핑 조사
-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과 자국산업우선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는 4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 치명적

3) 신흥시장(중국 이외에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불확실성

- 미국으로 머니무브 현상 ⇒ 채무상환과 연장에도 부담
- 신흥국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 ⇒ 인적자본의 확충과 혁신에 매진 필요

4) 브렉시트발 영국과 유로존의 불확실성

-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영국 경제는 놀랍도록 고요
- 2030년까지 영국의 GDP가 약간 감소할 수 있으나 여전히 위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브렉시트가 여타 국가(이탈리아 등)의 유로존 탈퇴를 부추길 수 있음

5) 중국발 불확실성

- 대규모 대출확대로 경제를 부양시키다보니 자연히 금융 리스크 증가
-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증시 폭락이 우려

2.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단기적 대응방안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과 보복 무역조치를 대비

- 미국에게 FTA가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함
- 중국에게는 사드배치를 빌미로 삼아 통상압력과 보복조치를 병행하지 않도록 경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에 대비

- 안정적인 금리정책과 단기적인 재정확장 정책
- 통화스와프 체력 같은 통화 방어막 강화

미국 현지 생산을 적극 고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현지 진출의 기회를 제공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

- 유럽 기업의 60%가 규제가 너무 많아 다른 아시아 국가로 옮기는 것도 고려 중
- 파격적인 규제개혁 없이는 어떠한 성장도 유도하기 힘들

2) 장기적 대응방안

- 자유롭게 경쟁하고 수익은 사회와 근로자가 공평히 나눌 수 있는 **구조개혁**
- 기업은 좀 더 유연한 조직구조로 **체질 개선** ⇒ 혁신, 생산성 향상, 창의적 기업문화
- 기업가 정신 필요

WORD

트럼프 노믹스

: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있는 경제 정책.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omics)의 줄임말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당시 '미국의 재건'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충수요 진작책뿐만 아니라 총공급 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 미국이 통상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20일 대통령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공언함으로써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새 대통령이 통상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함으로써 향후 미국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 동조화(coupling)의 반대 개념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크게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작게는 주가나 금리 등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수출과 소비,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등과 같이 서로 관련있는 경제요소들이 탈동조화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경제와 미국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의 주가도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한국의 주가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커플링이라고 한다. 반대로 미국의 주가가 오르는 데도 한국의 주가는 미국의 주가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미국 주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탈동조화 현상이 디커플링이다.

또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 수출이 증가(감소)하는 데도 소비는 감소(증가)하는 현상,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락)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상승)하는 현상 등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덤핑

: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로, 'MES(Market Economy Status)'라고도 부른다. 과거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덤핑수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시장경제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5가지(① 가격·요소비용 투입이 시장수요에 의하여 결정되고, 요소가격이 시장의 가치를 반영할 것. ②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투명한 회계기록을 가질 것. ③ 기업의 생산성 및 재무현황은 비시장경제주체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 ④ 관련기업은 파산법과 자산법에 의하여 제약받고 법률의 확정성과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 ⑤ 환전이 시장환율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중략)

한편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교역액 1,000억 달러 이상의 5대 교역국 중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다. 2009년 현재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EU·일본 등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계관세

: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가 상계관세 또는 상쇄관세이다.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WTO 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머니무브Money move

: 증시나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낮은 금리가 지속될 때 자금이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에서 부동산, 주식채권 시장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반대로 불황일 경우에는 자금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데, 이는 역머니무브라고 한다.

마이클 피시현상

: BBC 기상 캐스터였던 마이클 피시는 1987년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시청자의 제보를 두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TV를 통해 말했다. 불과 몇 시간 뒤 3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 영국을 덮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마이클 피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착륙

: 경기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급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기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연착륙이란 용어는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말 조만간 다가올 불황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 경기진정책을 쓸 때 경기후퇴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되풀이하며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기가 활황에서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때 기업매출이 줄어듦과 투자심리가 위축, 결국 감원과 함께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연착륙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기하강이 시작되기 전부터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연착륙이란 용어가 자칫 어쩔 수 없는 경기급강하를 애써 막는 듯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가급적 연착륙이라는 용어 대신에 '안정성장지속'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중진국 함정

: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중략)

'중진국 함정'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짧은 기간 안에 성장 단계를 일정 수준 끌어올리는 이른바 압축 성장(reduce growth)을 주도하는 경제 관료들의 사고가 경직적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 운영 체계도 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할 때 임금 상승 등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시장경제 도입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발전 단계가 다시 후퇴한 국가는 의외로 많았다.

새도뱅크Shadow banking

: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을 일컫는다.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한다. 그림자(shadow)라는 말은 그림자 금융이 금융의 본래 모습과 유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은 말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헤지펀드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중략)

베이징의 한 은행 관계자는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주요 메이저 은행 이외에 수많은 제2, 3 금융

권이 부동산 매매자들에게 거액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쉬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새도 빙킹을 둘러싼 불안감은 단기간에 사그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폰지사기Ponzi scheme

: 실제 자본금으로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최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중략)

이후 폰지사기란 용어는 수익에 비해 이자가 클 경우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나타내거나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빚을 굴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통화스와프(CRS)

: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중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지식백과

SENTENCE

“달러화가 계속 강제를 이어가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발라질수록 신흥국의 자금 이탈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발 금리정상화(금리인상)는 신흥국기업의 채무상환과 연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저금리 시절 부채를 늘려놓은 신흥국들이 과연 이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해 졌다.” - 60p

“이견은 있으나 2017년 올해 최소 2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한국도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물고 가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금리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안정적인 금리정책과 단기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 63p

“이미 트럼프 당선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맞물려 위안화 기준환율이 빠르게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 - 61p

- 만 원이 있는데, a국가에서 만원을 가져오면 연 5%의 이자를 준다 하고, b 국가에서는 만원을 가져 오면 연 3%이자를 준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a 국가에 돈을 맡겨 놓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b 국가가 6%를 준다 하면 a에 맡긴 돈을 배서 b국가에 넣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a국가는 가만히 있다가 돈을 빼앗긴 꼴이 됩니다.

- 세계 금융이 금리에 의해 대략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무작정 금리를 올리는게 좋은 게 아니냐 싶을 수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면 내수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부채(빚) 부담도 커지니까요. 거기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고 이자율이 높으니 은행에서 돈을 빼려 하지 않아 시중에 돈이 풀리기는커녕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시중에 돌아다닐 때 인상합니다. 흔히 긴축정책을 할 때 이자율이 오르는 이유가 여깁니다.

- 다만 이 예시에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는데 a국가와 b국가의 안전성과 위상에 대한 전제가 없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망할 조짐이 보이는 은행에는 아무리 이자를 높게 준다 해도 돈을 잘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위험하니까요. 반면 결코 망할 일 없어 보이는 은행에는 이자율이 조금 낮아도 맡깁니다. 이자율이 낮아도 우선 안전함이 보장되니까요.

- 이걸 국가 단위로 적용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전한 데다가 금리까지 높으면, 누가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 돈을 맡길까요? 이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 금리 변동에 심하게 휘청거립니다.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신흥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미국의 달러가 유입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전 세계에 유입되었던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쏠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외국 자본(달러)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똑같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미국 무역적자 대부분이 중국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무역 적자 대부분이 중국 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옥수수나 밀 등 곡물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산업 등에 4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공언했다.” - 59p

- 실제로 중국은 대량의 미 채권을 보유 중입니다. 미 채권과 달러 보유량에서 중국이 전 세계 1위인데, 중/

미 무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 중국이 환율을 사실상 조작하여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 제품에 세금을 왕창 매기는 식으로 보복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이 대량의 달러와 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복했다가 중국이 보유 미 채권과 달러를 다른 자산으로 바꾸겠다면서 팔아버리면 달러와 채권에 대한 값어치가 땅에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막강한 힘의 원천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손실이 가해지는 것 자체를 미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조작에 가까운 무역 흑자를 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출처 : 배경지식없이 큰 그림으로 쉽게 보는 실전경제

REFERENCE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저자는 한국인 최초로 Eu 집행이사회에서 12년간 국제 안보와 방산 협력에 자문을 맡아온 유럽 전문가다. 『브렉시트를 대비하라』를 통해 브렉시트 원인에서 대응책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세계 경제에 종속된 우리 경제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자세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 과 탈퇴를 뜻하는 Exit 의 합성어다.

브렉시트 찬반을 결정하는 영국의 국민투표 배경에는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촉발되었다. 당내 반 Eu 의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전의 영국정부가 Eu 내 회원국 자격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겠다는 움직임에서다. 영국 내부적인 보수당의 정치적 문제가 공약이 되었고 결국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하게 되었다. 유럽통합의 기원이 되었던 보수당 윈스턴 처칠 수상이 1946년 '유럽합중국'의 창설을 제안한 이래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공동의 목적으로 속해 있었으나 경제적 논리의 호불호에 의해 유럽공동체에 대처하게 되었다.

저자가 엮어놓은 블랙 시트 관련 어록 중의 일부를 보면 정치적 이유를 결국 경제적 해법으로 투표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버트 톰스 케임브리지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EU 탈퇴를 원하는 영국 사람 들은 유럽에 대한 회의론뿐만 아니라 앵글랜드적 정체성 더 나아가 잉글랜드식 국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전 총리

"우리가 EU 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럽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EU 는 수년간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남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지리적인 이웃이다."

"EU 를 탈퇴 할 경우 영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EU 보조금을 대체할 예산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

"브렉시트는 영국 농부와 이곳 북아일랜드 농부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EU 탈퇴 찬성자들의 입장은 유럽 난민의 핵심이다. 시리아의 배고픈 농민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탄압을 당해 반군되었고, 이들이 유럽을 최종 목적지로 삼자 난민 이민자 유입 역제가 국민적 여론이 되었다. 또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 EU 에 내는 분담금을 국내 사용자는 여론과 시리아 난민과 각국의 난민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피해 의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시킨다면 30 만 개 넘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군과 반 이슬람 정서의 확산은 찬성자들에게 설득력을 주었다.

EU 탈퇴 반대파는 그동안 누리고 있던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 시장을 잃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고 국내 총생산이 축소될 위험이 있고, 세계 금융 허브 중심인 런던 시티의 위상 변화로 그 흔들림을 이유로 들었다.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로 탈퇴에 국민투표가 마무리되었고, 그 파장은 영국 경제의 침체 우려를 가져왔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이 되었다. 현재 파운드화는 평가 절하되었고 영국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장기적으론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기존 질서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영국이 탈퇴한 EU 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고, 브렉시트의 승자는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예견한다. 동서 냉전이 무너지고 구성 간에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상하이협력기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 함으로 국제 질서 속에 벌어지는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 엔화가 달러와 파운드에 대해서 급격히 절상되었다. 일본 화폐를 안전 자산처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계는 2016 년 5 월 말 현재 국내 상장 주식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의 투자국이었다. 저자의 판단대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 금융시장을 견딜 수 있는데 IMF 와 금융위기의 두 번을 겪고 나서도 특별한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장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브렉시트가 선택된 다음날 우리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에 있었다. 투자국 순서에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불안을 불러오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었다. 그날 주식시장의 변동률은 61.47P 로 무역거래가 작다고는 했으나 시장에선 환율이 고공 행진을 하며 영국계 자금 이탈을 우려했던 기억이 있다.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유럽의 통합과 분열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대응책은 설득력이 있었다. 블랙 시트 '대응 방식'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한. 미. 일 삼국 동맹에 우리가 중심이 되고 균형 잡힌 외교 안보정책이 절실하다는 저자의 설명이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진 독일과의 각별한 관계의 필요성과 국제 통화 제도에서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수 있음도 보았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붕괴되고 금본위제의 부활 전망은 영국과 미국의 선거 결과로 국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중국은 현물 시장서 원자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옥수수 콩 같은 곡물에까지 확대하고 있었다. 일본은 자동차 시장에서 환율 강제로 인한 역효과를 만회하기 위해 EU 와 영국 사이에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을 보장받고 브렉시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아 냈다는 것이다.

ISSUE

1) 트럼프는 America First 를 외치며 미국인과,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대규모 무역전쟁이 일어나 결국 미국을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 또는 자신의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로 도리어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린 사례가 있나요? 역사적인 사건이나, 경영학적 사건을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1920년대 당시에도 전 세계 GDP 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국이었으니, 그런 나라에서 공황이 터지면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미국과 거의 맞먹는 엄청난 불황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황이 어떻게 세계적인 공황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국가들의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황을 수출하자는 생각입니다. (중략) 스무트-홀리 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수입품 2 만 개의 관세가 평균 59%, 최고 400% 인상되었습니다. 이 법을 추진한 미국 공화당은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인 농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럽 농산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고 미국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농업은 예나 지금이나 수출이 생명입니다. 수출 많이 하겠다고 만든 법 때문에 수출이 아예 박살이 난 것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깁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세가 다 올라가버립니다. (중략) 수출로 공황을 타개해보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공황을 전세계적으로 수출해버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소위 '근린궁핍화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어보겠다는 심산인데, 이런 생각은 국가적으로는 절대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 최진기의 글로벌 경제 특강 : 미국 대공황은 왜 세계적 공황으로 커져버렸나? -

2) 이러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본문을 참조하여 단기적/장기적 대처방안을 논의해보자.

본문 中

단기적 과제 : 미 · 중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보호무역 조치 대비, 미국 금리인상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화, 각종 규제 철폐

장기적 과제 : 구조개혁 및 혁신, 생산성 향상, 창의적 기업문화 확보, 적극적인 세계화, 기업가정신을 통한 도전